

## 감투만 좋았지, 자장면은 싫었다



사진 왼쪽부터 시사저널 '사선6465' 기획기사 인터뷰에 참여한 클라우츠 라흐비츠(℥ 대표), 아나 루시아 아렐라노(IDA 의장), 림 푸에이 티악(ADF 공동대표) ©시사저널

5학년 때 '포돌이'라는 어린이 경찰을 했다. 무려 일진 형들의 비행을 단속하는 임무를 맡았다. 무서웠다. 하지만 경찰 마크가 새겨진 초록 조끼만 입으면 없던 용기도 생겨났다. 기세를 이어 6학년 때는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6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개혁 공약, 그런 포부는 없었다. 단지 월요일 조화마다 교장선생님과 악수를 하고, 금요일이면 종례를 빠질 수 있는 그 소소한 특권이 탐났다. 그렇게 당당히 회장님 배지를 달았다.

어린 나이부터 감투가 좋았다.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꿔왔을까. 국회의원? 대통령? 아니 정답은 기자. 기특한 계기란 없었다. 대학 복학 후 여의도에서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기사를 자주 마주했다. 기자가 결혼하니 국회의원 환이 도열했다. '보도'가 적힌 기자증에도 시선이 갔다. 목혀뒀던 감투병은 그렇게 도졌다. 저널리즘을 예쁘게 포장한 뒤 언론사 몇 군데에 지원했고 결국 난 기자가 됐다. 기자증을 받은 첫날, 여의도에서 경기도 시흥 집까지 괜히 기자증을 목에 걸고 왔다.

첫 발령 부서는 사회부였다. 허구한 날 형사, 사채업자, 변호사 등과 술잔을 부딪치고 소맥을 맡았다. 정치부로 옮겨선 보좌관, 비서관과 호형호제하며 우애를 다졌다. 산업부에선 모터쇼 취재를 위해 미국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로 출장을

떠났다. 그렇게 20대가 갔다. 이 모든 순간이 좋았다. 기자증이 마치 프리패스 티켓처럼 느껴졌다. 이거 하나면 여느 포레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멀고 가까운 곳들을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었다. 남들은 3년 차에 슬럼프가 온다는데, 혼자 단꿈에 빠져있었다. ‘나, 기자 되길 잘했네!’

안정적이었다. 불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따금 초조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기자증을 받은 이후 얻어낸 감투가 없었다. 남들과 구별되는 호칭, 명함, 상장에서 찾아온 생(生)의 의미, 이게 사라진 것이다. 시작부터 박봉이었던 삶에 돈은 목

시사저널 '사선6465' 기획기사 첨부 일러스트 ©오상민



표가 아니었다. 단지 명예가 필요했다. 자랑할 무엇이 있어야 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과녁이 ‘한국기자상’이었다. ‘저걸 타자, 저걸 타면 당당하게, 오래 두고 자랑할 수 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목표가 생기니 노동도 달가웠다. 발제를 마감하고 야근을 자처했다. 사회, 정치, 문화 곳곳의 사건, 사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보를 수집했다. 기자라면 진즉 해야 했지만, 지지리도 하기 싫던 일들, 그 일들이 되기 시작했다. 당선을 위해 하루 열 군데의 시장도 뽕뽕하게 도는 여느 정치인들처럼.

그러다 국회 앞 선술집에서 한 시민단체 간사를 만났다. 소주 반병쯤 마셨을까, 그의 푸념 데시벨이 점차 높아졌다. “기자님, 우리나라 법이 개 같아요” 술자리 욕만큼 상투적인 게 있을까. “또 왜요” 라고 실없이 되물곤 돼지껍데기만 열심히 뒤적였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꽤 흥미로웠다. 화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하루 8시간 활동을 돕는 지원사를 무료로 배정받을 수 있다. 착한 법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노인 복지정책 대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8시



2019년 11월12일,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익재 씨 ©시사저널

간의 지원서비스 혜택이 4시간으로 반 토막 난다. 의식주를 챙겨주던 지원사의 퇴근이 앞당겨지는 순간, 나이 든 장애인은 사선(死線)에 서게 되는 셈이다.

이상했다. 장애에 대한 지식도 대단한 감수성도 없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그러니 이진 기삿거리가 맞았다. 선·후배 2명과 취재에 들어갔다. 때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한 국제 장애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입국해있었다. 해외에선 중증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다. 통역을 대동하고 그들이 묵는다는 여의도의 한 호텔을 무작정 찾았다. 그렇게 장애인 권익 관련 국제단체인 인클루전 인터내셔널(II)의 대표 클라우즈 라흐비츠와 국제장애인

연맹(IDA) 의장 아나 루시아 아렐라노, 아세안장애포럼(ADF) 공동대표인 림 푸에이 티악과 인터뷰를 잡았다. 더 중요한 건 ‘현실’이었다. 나이 든 중증장애인을 만나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기로 했다. 활동가들의 도움을 얻어 만 65세 김순옥 씨, 만 64세 이익재 씨, 만 65세 권오태 씨를 만났다. 사연은 다르지만 같은 무게의 아픔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었다.

화요일 오전 10시, 사진기자 후배 1명과 이익재 씨 댁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이 씨를 돕는 50대의 활동지원사 한 분이 우리를 맞았다. 사전에 동의를 구한 상태였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 거실 귀퉁이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하루를 관찰하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씨도, 지원사도 그런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침대에 누워 드라마 《대장금》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 씨는 장애인이 된 후 웬만한 드라마는 3번 이상씩 봤다고 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즐길 수 있기에, TV시청은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樂)이라 했다.

국내 굴지의 호텔 요리사였던 이 씨는 퇴근길 중앙차선을 넘은 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척추를 다치고 하체가 굳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그의 배에는 소변을 빼는 줄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갓난아기



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하루 1번 지원사가 이 씨를 의자에 앉힌 뒤 방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통에 소·대변을 옮겨 담는다. 그 뒤 화장실로 이 씨를 안고 가 몸을 씻긴다. 카메라가 이 씨의 무딘 표정을 담은 사이 난 3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이 씨의 불편이 구체적으로 담길수록, 이 ‘개 같은 법’의 허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오후 1시쯤 됐을까, 지원사 분이 말을 건넸다. “밥 먹을 시간인데 같이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 탓에 불편하셨을 텐데 식사라도 편히 하세요.” 이 씨가 수저를 드는 장면만 촬영한 뒤 이 씨 집 5분 거리에 있는 중식당으로 향했다. 자장면 2그릇을 시켰다. 고생한 후배를 위해 탕수육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말 없이 스마트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오전에 본 장면들이 식탁 화두로 오르지 않았다. 15분쯤 뒤 음식이 나왔을까, 우리는 채 20분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불어터진 자장면과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탕수육이 수북하게 남아 있었다.

이 씨 집에 돌아와 남은 오후 일과를 기록했다. 오후 2시부터 이 씨의 일상엔 고요를 넘어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 씨는 TV를 보다 낮잠에 빠졌다. 볼륨을 1에 맞춘 TV 소리와 짹짹거리는 시



시사저널 '사선6465' 취재에 응한 중증장애인 김순욱 씨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시사저널

계 초침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오후 4시가 되니 이 씨가 일어났다. 지원사는 익숙한 듯 토마토를 잘라 설탕을 뿌려 이 씨에게 건넸다. 이 씨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뉴스를 본 이후 매일같이 토마토를 챙겨 먹는다고 했다. 이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토마토를 포크로 집어 우리에게 건넸다. 자장면을 많이 남긴 우리는, 토마토 4분의 1조각마저 천천히 나눠 먹었다. 지원사분이 말했다. “이제 익재 씨 한 살 더 먹으면 (지원사 퇴근 시간이 빨라지니) 토마토 타임 앞당겨야 해요. 아니면 낮잠 시간을 좀 줄이든지.” 이씨는 대꾸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토마토를 씹었다. 오후 6시, 일을 나갔던 이 씨의 아내가 돌아올

때쯤 그날의 촬영과 기록은 종료됐다.

이 기록들을 ‘사선 6465’라는 제목 아래 10개의 기사로 나눠 담았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고, 국내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기사와 별개로 장애인들이 쓴 손편지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렇게 취재를 마무리했다. 기자가 된 이래 가장 긴 시간을 쏟은, 가장 많은 분량의 기사였다. 뿌듯했다. 그러나 아쉬웠다. 물론 상을 못 받아서만은 아니었다. 조금 더 널리 기사가 공유되고 많이 읽히길 바랐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과 아픔을

시사저널 '사선6465' 취재에 응한 중증장애인 이익재 씨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시사저널



날 것으로 보여준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희망이 빛을 보길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못했다. 변화를 낳지 못한 기사에, 보람보다 쓸쓸함이 짙게 남았다.

2019년 10월 가을에서 그해 12월 겨울까지의 이야기다.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자장면을 먹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내 비위의 문제일 수도, 준비도 없이 아프고도 생경한 현실을 마주한 충격 탓일 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기자증이 좋아 기자가 된 자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제복이 좋아 경찰이 되고, 권력이 좋아 국회의원 이 되고 검사가 된 이들. 자장면을 넘기지 못한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훌륭한 기자의 정의는 모른다. 다만 내가 그런 기자가 아니란 것은 안다. 난 여전히 감투가 좋고, 명예가 좋은 장삼이사 언론 노동자다. 다만 늦게나마 깨달았다. 상은 더 이상 내게 유용한 감투가 아니다. 바라건대,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 탓에 불합리한 불행을 마주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 익재 씨가 낮잠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싱싱한 토마토를 드실 수 있게끔. 언론인의 삶에 그만큼 큰 감투가 있을까. 그 순간을 상상하다 보면 허기가 저온다. 이제야 조금씩 자장면을 넘길 비위도, 용기도, 이유도 찾아간다. 🙏